“내 안에 들어있는 그 ‘놈’ 때문에…”

10년만에 소설 <연적> 발표한 문형렬 작가

“10년 동안 다시는 소설을 쓰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틈에 내 가슴에 들어앉은 그 놈 때문에 글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산고 끝에 출산한 작품 <연적>을 들고 소설가 문형렬씨가 10년 만에 독자들을 찾아왔다.

“내 작품에 내가 의도하는 복선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주인공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요. 주인공이 웅크리고 있으면 저도 하릴없이 기다립니다.”

글을 쓸 때 캐릭터를 중시한다는 문 작가는 어느 순간 가슴 속에 똬리를 틀고 들어앉은 주인공이 활개를 펼 때까지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작업만 한다고 밝힌다. “내가 없어져도 내가 만든 주인공들은 영원히 살아남기를 바란다”고 할 만큼 문 작가가 주인공에게 가지는 애착은 크다.

“이번 소설은 구운몽에서 주인공이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오는 모티브만 따왔다”는 문 작가는 “인간세상으로 쫓겨나기 싫어서 도망 다니고 뇌물을 쓰고 8도사와 싸우는 등 비열하기까지 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인간 내면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고 소설의 속살을 들춰 보였다.

동학혁명의 한 가운데로 아기의 모습도 아닌 20살 성인의 모습으로 벌거숭이가 되어 떨어지는 성진은 인간세상에서 양소유 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다. 천상의 일을 그대로 기억한 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의 한복판에 버림받은 것에 대해 하늘을 원망하는 주인공.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재 세상의 축소판이다.

소설 <연적>은 동학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죽어간 30만, 아니 비공식적으로 100만 명에 달한다는 이름모를 민초들을 위한 진혼곡이기도 하다. “정면으로 위로하기보다 정반대로 해학적이고 우스꽝스럽게 접근해 위로하고 싶었다”는 것이 문 작가의 고백이다.

<연적>에는 역사적 인물들도 나온다. 녹두장군 전봉준을 비롯해 대원군 등이 이야기의 커다란 걸개를 구성한다면 주인공 성진 · 양소유를 통해 인간 내면에 자리한 야비하고 비열한 인물상을 겉으로 드러내 근본적인 완성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이번 작품은 2004년 2월부터 쓰기 시작했다. 구상은 소설을 절필했던 10여 년간 꾸준히 계속해 왔다. 작업에 몰두하고자 중국 북경에서 2달간 머물기도 했다. “단 한 줄도 못 썼어요. 매일 하루 2시간씩 중국어 배우고 하루 종일 중국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 생각이 나질 않더군요. 역시 작가는 모국어 문화권에서 모국어로 말하고 모국어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동학혁명 때 죽어간 민초들 이야기
구운몽 모티브로 비열한 인간 그려
“세상 어디나 있는 완성 구하고 싶어”
“가장 불교적인 내 생각 담은 작품”

<연적>을 쓰는 동안 10kg이 넘게 빠졌다.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물만 먹게 된다는 문 작가는 물로 연명하며 글을 써내려갔다.

“문학 · 예술 · 수행 ·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궁극의 문제는 깨달음이요, 자기완성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형식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 것인가. 여기에 존재하며 동시에 없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그 완성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내면의 모습과 사랑 그리고 완성을 다룬 소설 <연적>에 대해 “가장 불교적인 내 생각을 담은 작품으로 사랑 그 자체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한 문 작가는 198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로 등단해 신춘문예 4관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시 소설 등을 넘나드는 작품세계를 펼쳐왔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부처님 다룬 초대형 뮤지컬 만들 것”

interview

작곡 40년 헌정공연 가진 김희갑 선생

40년간 작품 수 정확히 모를 정도
내면에 항상 불교 심성 간직
인드라 스님 음반 작업 중

작곡 인생 40년을 맞아 4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헌정공연을 가진 작곡가 김희갑, 작사가 양인자 부부를 만났다.

‘타타타’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겨울의 찻집’ ‘사랑의 미로’ 등 주옥같은 대중가요, 영화음악, 뮤지컬 명성황후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히트작을 양산한 김희갑 양인자 부부는 “신행생활을 치열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면에 불교적 심성이 맞닿아 있다”는 말을 한다.

작업한 음악이 얼마냐는 물음에 김희갑 선생이 “한 3000여곡 된다”고 말하자 양인자 선생이 “20년 전부터 3000곡”이라며 웃는다. 그 통계도 KBS 음반실에서 내준 대략적인 통계라 전체 작품수가 얼마인지 모른단다. 양인자 선생에게도 물었다. “200곡정도”라는 선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희갑 선생이 “여기는 15년 전부터 200곡인데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작업한 노래만도 100곡이니까 아마 500곡은 될 것”이라고 정정해준다.

음악과 함께 여서 더욱 생생함과 다정함을 드러내는 이 음악가 부부는 현재 가수 데뷔를 앞두고 있는 인드라 스님의 음반을 작업하고 있다.

5월 말경 발표할 음반에는 ‘정구업진언’ 등 불교색이 진한 노래 외에도 ‘무명’ ‘사막의 전갈’ 등 전생과 현생을 넘나드는 얘기를, ‘응원가’는 산스크리트어 ‘가떼 가떼 파라가떼’(아제 아제 바라아제)를 구호 삼아 외치도록 흥겹게 만들었다.

6개월간 인드라 스님을 위해 9곡을 작업한 김희갑 양인자 선생은 “인드라 스님의 노래 분석능력과 습득력이 놀라울 정도여서 작업이 빨리 진행됐다”고 말한다.

보통 이들이 한 가수의 작업을 시작하면 1년 정도에 걸쳐 진행한다. 노래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가수의 가슴 속에 들어가 녹아날 정도로 연습을 시키고 몰입시킨다.

“이번 헌정 무대에서 스님이 ‘무명’을 노래하는데 관세음보살이 화현한 것 같이 아름다워서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인드라 스님의 데뷔음반이 마무리되면 바로 가수 마야랑 작업할 예정인 김희갑 양인자 부부는 마야를 위해 강렬한 카리스마와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 연습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30여 년간 전 세계를 돌며 공연하듯 앞으로 붓다를 주인공으로 한 초대형 뮤지컬을 작업하고 싶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심성의 근저를 깨우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뮤지컬로 만들어 100년 200년 후에도 공연되는 작품으로 남기고 싶어요.” 강지연 기자

연극 ‘지대방’ 출연진 조계사서 삭발
원담 스님 희곡… 5월 12일부터 공연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이 희곡을 쓴 연극 ‘지대방’(연출 강영걸)에 출연할 배우들이 4월 13일 오후 조계사에서 삭발식(사진)을 했다. ‘지대방’은 사찰 지대방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엮은 연극.

이날 삭발식에서는 스님역을 맡은 명로진(혜산 스님 役), 배수백(돈조 스님 役), 이태환(우지 스님 役)씨 등 배우 3명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주지 도문, 교무국장 석연, 재무국장 원경 스님의 집전으로 머리를 깎았다. 허운 스님 역할을 맡은 배우 정진씨와 오영수씨는 미리 삭발해 이날 삭발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1996년 10 · 27 법난을 주제로 한 연극 ‘뜰 앞의 잣나무’로 이미 작가 ‘데뷔’를 했던 원담 스님은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유쾌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극 ‘지대방’은 5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 종로 김동수플레이하우스에서 공연될 예정이다.(02) 3443-1010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나무아미타불! 한국불교의 전통(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念佛萬日會

한국불교는 念佛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한국불교는 念佛로 대중화 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念佛로 중흥 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시민이 필요한 불교가 되어야 한다.

천년고찰 경주 불국사 성지대회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나무아미타불! 탑돌이 합시다!!!

전국염불만일회에서는 1998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보성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해남 미황사, 팔공산 은해사, 제주도 법화사, 충남 덕숭산 수덕사를 순례하였고 올해 2006년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천년고찰 경주 불국사에서 9차년도 염불성지대회를 개최합니다. 다시없는, 금생에 한번뿐인 이번 행사에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경주 불국사 전경

◆ 일 시 : 2006년 7월 30일 ~ 8월 1일(2박 3일)
◆ 장 소 : 경주불국사, 석굴암
◆ 접 수 : 전화신청후 은행계좌입금 국민은행 023-21-0667-309 염불만일회
농 협 053-02-128104 염불만일회
◆ 동 참 비 : 개인직접불국사로 오실 분 8만원 · 서울에서 버스로 출발하실분 11만원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문 의 : 02)732-1215~17 / FAX 732-1207

※평소 염불수행을 원하는 신규회원 - 가입안내:가입비 3만원(염불수첩제공)
◎ 세계문화유산인 관계로 포시즌 호텔에서 숙식합니다.
◎ 차량과 숙식관계로 5월 31까지 1차 마감함.
◎ 전국염불만일회 불국사 성지대회에 동참하실분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동산불교회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